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연중 제6주일
http://www.103skcc.org 제35권 12호(나해) 2015년 2월15일

[묵상]



그는 나병이 가시고 깨끗하게 되었다

나병 환자의 용기와 믿음

죽음과도 같은 절망 속에서도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던 나병환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 다가온 나병 환자의 용기와 믿음이다.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건 일.

1.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나아갔고,
-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자세.
2.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 겸손한 자로서 삶에 대한 경의, 이웃에 대한 존중,
자기 자신에 대한 겸허의 자세.
- 자신 안에 얼룩진 영혼의 상처를 바라 볼 수 있었고,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부정과
자기소외의 어둠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었다.
3.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신이 결정하고 주님께서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질 것을 믿는 간절한 신앙,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나병환자의 이 믿음.
- 아, 부럽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트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 꾸리아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3: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도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권순봉 요안나
	(생)이만석 미카엘, 김지수 보나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송근섭 발렌티노, 현시영 요셉, 변혜경 올리안나, 박동옥 요셉, 권분남 콜롬바,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황주호 요셉, 이용식 베드로, 정용선 시메온 & 김종규 & 정윤 요셉, 이필주 바오로, 신대식 예로니모
	(생)정하상 바오로 & 정율리아 & 정젬마 & 정클라라, 서성용 베드로, 김정석 베드로, 이은선 아네스, 도런스북 구역원 가정들, 배경미 안젤라 & 배태임 안나, 배경한 찰스 & 이수잔 & 배일호 크리스찬, 김복순 벨라멧타 100세 생신, 최순옥 스텔라, 김정웅 요한 & 김춘자 막달레나의 대자,대녀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레위기(Leviticus) 13,1-2.44-46

화답송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당신은저 의 피-신 처, 구원의 환호로 저 를 감싸시 나 이 다.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은 이!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제 2독서 1 코린도(Corinthians)10,31-11,1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복 음 마르코(Marco)1,40-45

영성제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
을 채워 주셨네.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64	182	182
봉헌	269	264	272
성체	주품에	306	287
파견	그사랑 주님께	191	236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새신

제3장

‘성령새신운동’의 빛과 그늘

2) 가계(家系) 치유

한 사람의 그릇된 행동이나 불행을 무조건 과거의 조상 탓으
로 돌리는 ‘가계 치유’는 가톨릭 신앙의 이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리스도 신자는 조상 탓을 하면서 과거에 매이지 말
고, 세례를 통해 주어진 용서의 은총을 믿으면서 자유와 해방
의 기쁨 속에서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3) 일부 봉사자들의 그릇된 자세

한국에서 성령새신운동이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
데는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봉사자들의 힘이 컸다. 하지만 일
부 봉사자들의 그릇된 자세는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다. 성
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명예와 금전을 탐하거나
특권 의식을 갖는 행태는 성령새신운동의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성령의 은사는 무상의 은혜, 거저 받은 은혜로서, 거저 받은 것
은 거저 주어야 한다(마태 10,8 참조).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
은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이나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
하면서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베드로 사도는 하느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
는 시몬에게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꾸짖었는데(사도
8,18-24 참조), 이는 은사를 돈과 결부시키는 것에 대한 엄중
한 경고라고 하겠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우월감이나 특권 의식을 갖고서 자기와 같은 은사를 받지 못
한 이들을 알본다면, 이는 대단히 교만한 태도다. 은사의 주권
은 하느님께 있고 은사를 받은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일꾼일
뿐이다.

일꾼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바오로 사
도는 좋은 모범을 보여 준다. 그가 바르나바와 함께 리스트라
에서 선교를 하다가 앓은뱅이 한 사람을 고쳐 준 일이 있었다.
그러자 그곳 백성은 바르나바를 제우스 신, 바오로를 헤르메
스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 두 사
도는 그들 사이에 뛰어들어 옷을 찢으면서 이를 극구 만류하
였다(사도 14,8-20 참조). 두 사도의 태도는 자신을 하느님보
다 앞세우지 않는 좋은 모범을 보여 준다.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독선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자신의 추종자를 모아서 폐쇄적인 그룹을 형성하여
분파와 갈등을 조장한다면, 참된 봉사자라고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성령께서는 일치와 평화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계속>

나 병(病)환(歡)자(慈)

1. “진영 밖에 혼자 살아야 한다.”

(레위 13,46 참조)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어제 새로 서임되신 추기경님들과 함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감사 미사를 봉헌하십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염 추기경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번에 교황님께서 ‘붉은 모자(biretum rubrum)’를 씌워 주신 이탈리아 람페두사(Lampedusa)섬이 속한 아그리젠토(Agrigento)대교구장 몬테네그로(Montenegro) 추기경님의 서임은 정말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를 뛰어넘는 교황님의 깊은 뜻은 전쟁과 가난 때문에 고향인 아프리카를 떠난 이들을 환대(歡待)한 람페두사의 사목자를 통하여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가 이주민(移住民)들을 위하여 울어줄 것인가?”

2.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1코린 11,1) 제3회 이태석 봉사상 수상자인 산청 성심원의 유의배(Luis Maria Uribe) 신부님은 “요즘 완치가 가능해진 한센병은 천형이라기보다는 마음의 병입니다. 세상의 편견 때문에 속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라는 말로써 우리들의 닫힌 마음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병환자 치유가 ‘가없는 마음’(마르 1,41 참조)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가없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공감(共感)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동정(同情)을 일으켜서 개심(開心)하도록 도와줍니다.

3.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마르 1,44)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사랑과 책임」에서 “인간은 보이는 세상과 통교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상인 하느님과도 통교한다.”고 가르쳐주십니다. 사

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은 이미 자신 안에 ‘통교의 은사’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환대, 곧 받아들이며 끌어안음’의 삶을 살아야 할 소명을 지닙니다. 때문에 교황님께서는 “배척의 문화를 뒤로하고 환대의 문화로 나아갈 때”(2014년 세계 이민의 날 담화 참조) 우리 자신의 실현도 이룰 수 있다고 권고하셨습니다.

4.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알아 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나는 병(病)들어 고생하는 너희들에게 환(歡)대의 문화를 살게 하여 치유되게 하는 자(慈)비로운 하느님이다.” [나·병(病)·환(歡)·자(慈)] 그러므로 ‘나병환자의 치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마음을 열게 하는 성사(聖事)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가르멜의 산길」에서 “성부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말씀이신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또 단 한 번에 말씀하셨다.”라고 가르쳐주십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곧 시작될 사순 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원의 은총으로 충만해지시길 빕니다. 아멘!

◆ 정연정신부 / 절두산순교성지주임

당신들은 모르신다

아버지가 하시는 가장 슬픈 말,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어머니가 하시는 가장 아픈 말,
내 인생 닮으면 안 된다.
속상해하실까 내색은 못 하고,
아버지처럼만 살아도 좋겠는걸.
어머니 생만큼만 해도 좋겠는걸

◆이영 아녜스/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동 2,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사순시기 ✠

◆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미사

- 오전8:30, 오후 7:30,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미사와 재의 예식에 참석합니다.(금육과 단식)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미사가 오후 7시30분 저녁미사로 변경되며, 미사후 전신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진행됩니다.
(2월20,27,3월 6,13,20,17일,4월 3일)

재의 예식 다음금요일: 배론청년회

사순1주간 금요일: 꾸리아

사순2주간 금요일: 소공동체

사순3주간 금요일: 요셉회

사순4주간 금요일: 양업회

사순 5주간 금요일: 대건회

성 금요일 (오후 3시):안나회

◆ 사순절 합동판공성사 : 3월 26일(목요일)

재의수요일부터 성삼일 전까지의 고백은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미사 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사순절 희생 애금 봉투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애금 봉투는 주님 만찬 성 목요일(4월2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을미년 '설날' 합동 위령미사

앞서 가신 조상님들과 부모 형제 친지들의 영혼을 기억하여 설날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 일시 : 2월19일(목)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연도와 분향이 있습니다.

- 미사후 세배와 떡국 나누기
- 미사예물 봉헌 : 사무실

◆ 요셉회 설날 대잔치

- 일시 : 오늘주일(15일)12시30분~4시30분
- 행사내용 : 추억의 노래부르기, 제기차기 윷놀이
- 참가대상 : 요셉 회원이 아닌 본도 65세 이상이면 부부 동반 환영합니다. 음식과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연락처 : 정기은비오 ☎(310)780-2789

◆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순 피정

- 일시 : 2월27일(금)~3월1일(주일)
- 장소 : 꽃동네
37885 HWY. 79. S. Temecula, CA 92592
- 참가비 : \$60 (1/18~2/8 등록시), 이후 \$85
- 준비물 : 성경, 묵주, 슬리핑백, 재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 문의: 김낙기 바오로 주일학교 교장
☎(310)709-3343

◆ 바오로 딸 수녀님들이 "한국 가톨릭교회의 신앙 선조들" 책 세 권을 기증해 주셔서 사무실 옆 책꽂이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고 읽고 반납해 주십시오. 아울러 성당 비품을 빌려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대장에 기록해 주시고 반납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책, CD, 열쇠, 의자, 테이블, 그릇, 프로젝터...등등)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2월15일(주일) *하버/카슨반 : 수제비국 (\$3)
* 주일학교 :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 수업 없음
- 2월22일(주일) * PV1반 : 육개장(\$3)
* 주일학교 : 서브웨이 샌드위치(8학년)

지나간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권오상 김기정 김민석 김상근 김성현 김양금 김영덕 김옥보 김옥찬 김원호 김정선 김정희 노혜숙 박광자 박영희 반비오 방정복 변복순 성미선 송기철 심재은 안태갑 엄세종 엄정자 원건희 유희연 유희동 이영석 이은경 이일길 이재용 이종선 장영우 정지숙 주대종 주용순 지경수 최상만 최재은 하정화 황인종	성전헌금	권오상 김기정 김민석 김양금 김영덕 김옥보 김원호 노혜숙 박광자 반비오 방정복 변복순 성미선 안태갑 엄세종 엄정자 원건희 유희연 유희동 이일길 장영우 정지숙 주대종 주용순 지경수 최상만 최재은 하정화 황인종
	합계:\$4,340		합계 : \$1,930
주일미사 헌금 : \$2,787			

◆주일학교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 제목: 마르코 복음 (Mark), 노트 제공 (2월 8일)
 - 대상: 주일학교 모든 학생
 - 필사 마감: 3월 29일까지 담당 교리교사에게 제출
 - 시상: 부활 대 축일 미사 중 (4월5일)
- *시상은 전권을 필사한 아이들에게만 한함

◆한국학교 설날행사

- 행사목적: 설 행사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배운다.
- 일시: 2월 22일 일요일 오후 12:00 ~ 오후 3:00
- 장소: 백삼위 한국 학교
- 일정: 12:00 ~ 12:30 설에 대하여 알아보기
12:30 ~ 13:20 신부님께 세배
13:20 ~ 15:00 전통 놀이 배우기
(윷놀이, 제기차기, 막지치기)

◆ 103위 성당 봉사활동 프로그램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Volunteer 시간을 받을 수 있는 성당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발족 합니다. 매주 일요일 9시30분 미사 전,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천교장에 있는 의자와 책상 먼지를 닦아내는 활동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서는 사무실에 비치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추후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15일)은 프레지던츠 데이연휴로 주일학교, 한국학교는 수업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대체휴일로 화요일에 휴무입니다.

“세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미주 평의회

- 제목: 봉헌을 위한 준비 특강
- 일시: 2월 16일 (월), 17일 (화) 오후 6:30
- 장소: 성바실 한인천주교회 본당지하
- 강사: 김문상 디오니시오 신부님 (가톨릭 신문사)

◆공동체를 위한 “함께 삶의 기쁨을”

- 일 시: 2015년 2월 21일 (셋째 토요일)
- 미 사: 11시
- 장 소: 작은 예수회 LA분원
(올림픽과 실로암 약국이 있는 아라파호 골목길)
1137Arapahoe St.
Los Angeles, CA 90006
(213) 820-6535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유허희 바오로 991-4838 2/14(토) 오후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2/14(토) 오후 6시 성당강당
	3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2/13(금) 오후7시30분 성당 1층
토런스 서 엄혜은 도토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김충섭 마틴 530-3010 2/14 (토)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2/14(토) 오후5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2/13(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용 스테파노 625-3312 2/20(금)오후 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데레사 634-6923 2/13(금) 오전11시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이상철 크리스토퍼 818-6903 2/14(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조화숙안젤라 & 박카타리나 2/9(월) 오후 7시 성당강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	박진수 스테파노 / 749-3151	주영애 켈마 749-3151 2/7(토)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PV구역 합동 반모임377-6659 2/14(토) 5시 남성철 베네딕도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합동 반모임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합동 반모임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합동 반모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회의,요셉회 오후1시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의 오후1시

124위 시복특집< 21 > 동정부부 2.

유중철 요한?(1779~1801)

이순이 루갈다(1782~1802)

마침내 1797년 10월 이순이의 집에서 혼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열아홉 살 유중철과 열여섯 살 이순이가, 길으로는 부부지만 내막으로는 오누이처럼 살기로 약속하고 결혼식을 올린 것입니다. 당시 서류부가라 하여 혼례를 올린 신부가 한동안 친정에 머무르던 풍습에 따라 이순이는 1년 동안 친정에 머물다가 이듬해 10월 전주의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재회한 유중철과 이순이는 부모님 앞에 꿇어앉아 장엄하게 동정을 서약하고 오누이처럼 일생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오누이로 지내며 동정을 지켜 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의지가 약해지면 마음이 혼미해지고 본능적 욕구가 불쑥 치솟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 육신의 욕망을 극복해 갔습니다. 이들에게 일상은 매 순간이 자기 극복의 단련으로 이어지는 영신 수련의 삶이었습니다.

1801년 시작된 신유박해의 불길은 그 해 2월 이순이의 큰 외삼촌인 권철신을 덮쳤고, 이 비보가 전주에 당도하기 무섭게 유항검이 체포되었습니다. ‘전라도 천주학의 괴수’라 소문난 유항검이고 보니 도무지 무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항검은 즉시 서울 포도청으로 압송되었고, 유관검과 유중철도 전주 감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유항검과 유관검은 전주 풍남문 밖, 지금의 전동 성당 터에서 능지처참 되었고 유중철은 큰칼을 쓴 채 무한정 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유항검의 사형 판결 소식을 전해 들은 이순이와 가족들은 머지않아 닥칠 환난을 예감하며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마음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9월 15일, 전주 감영의 포졸들이 몰려와 이순이와 가족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이순이는 옥에 갇히면서도 지필묵을 챙겨 들었습니다. 언젠가 유항검 집안이 박해를 당하거든 박해의 상황을 소상히 기록해 두라는 주문모 신부의 분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9월 27일에는 옥졸들의 눈을 피해 어머니에게 유서와도 같은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11월 14일, 옥졸이 옥에 갇힌 시동생 유문석을 불러냈습니다. 이순이가 그 까닭을 물었더니, 옥졸은 “관장의 명령이다. 유문석을 큰 옥으로 데려가서 제 형과 함께 가둘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순이는 유문석에게 “서로 잊지 맙시다!” 하고는, 가거든 형에게 같은 시간에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치기를 원한다는 말을 꼭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다음 호에도 계속됩니다.)

◆ 서울대교구 홍보국 엮음

사도들은 누구일까?

[교리상식]

☞ 보통 사도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는 그리스어로 ‘파견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도들은 대부분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굳게 믿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파견하셨습니다.

◆ 예비신자공금증105가지/ 가톨릭출판사

그를 이쁜이라고 불렀더니...

난 장사를 한다.

장사를 하다 보면 별별 손님을 다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손님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에 따라 난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진상, 무대포, ...

내가 그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항상 그 이름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또 손님의 이름을 일일이 물어서 기억할 수도 없고 해서 우리끼리 아는 별칭을 만들었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참 똥똥했다. 본인도 자신을 잘 아는지라 자신을 돼지라고 부르라고 했다.

난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복덩이라고 지어 주었다.

그 후 그는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 자신을 복덩이라고 말한다. 이 얼마나 좋은가?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손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이름은 모르지만 난 나보다 어린 여자손님에게는

이쁜이라고 불러 준다.

그러면 아주 좋아한다.

내가 이쁜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보면 정말 예쁘게 보이고 예쁘게 다가온다.

그래서 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주 좋아한다.

◆ 마리아 사랑넷 / 좋은글 중에서

[기도묵상]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고요해져서 하느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 쇠렌 키르케고르 -